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5, No. 4 pp. 372-382, 2024

https://doi.org/10.5762/KAIS.2024.25.4.37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종임**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nd Social Support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ng-Im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및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개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분석 대상은 164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대학생활 만족도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F=7.07, $p$<.001)와 전공선택 본인의지(F=2.96, $p$=.01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r=.312, $p$<.001), 자기주도적 학습(r=.393, $p$<.001)과, 사회적지지(r=.201,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28.7%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included nursing students from some areas,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November and December 2023. The data of 164 nursing students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WIN 20.0 program. The findings showe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ignificantly affected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study examine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se adjustment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F=7.07, p<.001) and whether the students chose their major on their own (F=2.96, p=.015).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312, p<.001), self-directed learning (r=.393, p<.001), and social support (r=.201, p<.001). In sh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had a high impact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se factors explained 28.7% of the variance i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se findings raise a need to develop and run specific programs to increase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cultivate their 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e, and promote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 improve their adjustment to college life.

**Keywords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Social Support, Nursing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Life

*Corresponding Author : Jong Im Kim(Jungwon Univer)
email: jikim17@jwu.ac.kr
Received February 13, 2024 Revised March 11, 2024
Accepted April 5, 2024 Published April 30,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정체성을 찾는 시기이다[1].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간호학과 선택 시 자신이 선택하기보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나 취업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기도 하기 때문에[2] 진로에 대한 갈등과 함께 자신의 특성과 전공 사이에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면서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3]. 또한, 과중한 학습량과 임상실습 등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4] 학업을 포함해 진로 준비 과정 등을 잘 선택하여 관리 해야한다.

이러한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향후 사회에서 맡은 임무를 성숙하게 감당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볼 수 있다[5].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수행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 적응을 못하는 경우 학업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전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며 휴학, 자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6]. 또한, 대학생활 동안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어[7], 대학초기부터 적응을 잘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 및 준비 행동과 관련된 개념으로, 개인의 진로결정과 의사결정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8].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9], 경험과 피드백 등의 영향을 통해 형성되는 자신의 신념으로[10], 대학생활 적응에 필요한 요인들과의 관련성 확인이 필요하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별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11], 학생의 자신감, 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능력이다[12]. 또한, 학습이나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대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1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지지는 대학생활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충하고,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14]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지지가 높은 경우 자기통제력이 높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향상[15]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자기효능감[16], 학업스트레스[17], 자기주도적 학습[18], 대인관계[19], 전공만족도[20] 등의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주로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간호학과 1,2학년을 대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이 대학생활 이후의-성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학 1,2학년 시기는 향후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16],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개인이 느끼는 과중한 학습량, 학습방법에 대한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21] 대학초기부터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적응 관리 방안마련을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 1,2학년 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 소재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 학생, 연구기간 동안 결석자, 외국 유학생,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자료수집 전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고, 연구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학생을 조사하였으며, 연구 보조자가 해당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설명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표본크기는 G power 3.1 version을 이용하여 Multiple regression에 필요한 연구대상자 수를 구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는 중간 정도인 .15의 크기를 근거로 회귀분석(예상독립 변수 7개)으로 검증력을 산출하였을 때 153명이 적정수준이었다. 설문지 회수율이 낮을 것을 고려하여 180부를 배포하였고, 그중 답변을 모두 같이 표시하였거나 설문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16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특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수로는 성별, 학년, 성적, 대학생활 만족도, 동아리활동, 학교생활 어려움 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 전공선택 본인의지 유무 등으로 구성하였다.

#### 2.3.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 내에서 새로운 구성원 및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반적인 애착이나 스스로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으로[22], 학교생활과 관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Kim[23]이 대학생활 적응 척도로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설문지의 문항은 총 9문항으로 교수관계, 교우관계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 2.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과 Taylor[24]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S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Lee와 Lee[25]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목표선택 11문항, 직업정보 6문항, 문제해결 3문항, 미래계획 5문항 등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0이었다.

#### 2.3.3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측정하기 위해서 Lee 등[26]이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주도 학습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학습계획 15문항, 학습실행 15문항, 학습평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많이 이루어 짐을 의미한다. Lee 등[26] 연구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9이었다.

#### 2.3.4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Park[2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으로 정서적지지 7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96이었다.

###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은 Duncan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동아리활동 유무, 학교생활 어려움, 생활정도, 건강상태, 전공선택 본인의지 유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38명(23.2%), 여자가 126명(76.8%)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79명(48.2%), 2학년 85명(51.8%)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군은 54명(32.9%), 보통 96명(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한다' 14명(8.5%)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위권'이 101명(60.0%)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권' 37명(25.1%). '하위권' 26명(14.9%)이었다. 동아리 활동 유무에서는 '있음'이 94명(57.3%), '없음'이 70명(42.7%)이었다. 생활정도는 '중' 수준이 119명(72.6%), '상' 수준이 24명(14.6%), '하' 수준이 21명(12.8%)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좋음'이 87명(55.1%), '중간정도' 72명(44.9%), '나쁨' 5명(3.0%)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선택 본인의지 유무에서 '예' 64명(37.0%), '아니오' 100명(60.0%)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N=164)

| Variables | Categories | n | % |
|---|---|---|---|
| Gender | Male | 38 | 23.2 |
| | Female | 126 | 76.8 |
| Grade | 1st | 79 | 48.2 |
| | 2nd | 85 | 51.8 |
|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 Satisfied | 54 | 32.9 |
| | Common | 96 | 58.6 |
| | Unsatisfied | 14 | 8.5 |
| Credit | High | 37 | 25.1 |
| | middle | 101 | 60.0 |
| | Low | 26 | 14.9 |
| Extracurricular activities | Yes | 94 | 57.3 |
| | No | 70 | 42.7 |
| School life difficulties | Yes | 117 | 71.3 |
| | No | 47 | 28.7 |
| Economic status | High | 24 | 14.6 |
| | Middle | 119 | 72.6 |
| | Low | 21 | 12.8 |
| Health state | Good | 87 | 55.1 |
| | Moderate | 72 | 44.9 |
| | Poor | 5 | 3.0 |
| Willingness to choose a major | Yes | 64 | 37.0 |
| | No | 100 | 60.0 |
| | Total | 164 | 100% |

Table 2. Level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social support (N=164)

| Variables | | Total score M±SD | Items score M±SD | Range |
|---|---|---|---|---|
| Adaptation to college life | Adaptation to college life | 52.94±8.0 | 3.12±.47 | 1-5 |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Target selection | 41.25±6.74 | 3.70±.54 | 1-5 |
| | Job information | 22.2±3.90 | 3.63±.30 | 1-5 |
| | Problem solving | 10.56±2.39 | 3.52±.79 | 1-5 |
| | Future plan | 18.15±3.34 | 3.60±.63 | 1-5 |
| | Total | 92.25±14.6 | 3.65±.54 | |
| Self-directed learning | Learning plan | 52.06±8.82 | 3.47±.58 | 1-5 |
| | Learning practice | 52.93±7.20 | 3.52±.50 | 1-5 |
| | Learning assessment | 34.96±3.27 | 3.45±.52 | 1-5 |
| | Total | 139.56±18.72 | 3.48±.46 | |
| Social support | Emotional support | 27.85±4.78 | 3.96±.67 | 1-5 |
| | Informational support | 23.65±4.08 | 3.79±.51 | 1-5 |
| | Material support | 23.31±4.23 | 3.35±.61 | 1-5 |
| | Evaluative support | 23.98±3.98 | 3.82±.55 | 1-5 |
| | Total | 98.8±15.7 | 3.89±.57 | |

### 3.2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의 정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총점수는 52.94±8.0으로 척도기준 5점 만점에 3.12±.47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총 점수는 92.25±14.6으로 척도기준 3.65±.54이었으며, 하위 영역인 목표선택은 3.70±.54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정보는 3.63±.30, 문제해결 3.52±.79, 미래계획 3.60±.63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총 점수 139.56±18.72로 척도기준 3.48±.46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의 학습계획은 3.47±.58, 학습실행 3.52±.50, 학습평가 3.45±.52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총 점수 98.8±15.7, 척도기준 3.89±.57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인 정서적지지 3.96±.67, 정보적지지 3.79±.51, 물질적지지 3.35±.61, 평가적지지 3.82±.55로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수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 만족도(F=7.07, $p$<.001)와 전공선택 본인의지 유무(F=2.96, $p$=.01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 군 3.29±.53, '불만족' 군 2.90±.38로 만족하는 군이 불만족하는 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군은 대학생활 만족도가 낮은 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7.07, $p$<.001). 전공선택 본인의지 유무에서도 '예' 군 3.22±.52, '아니오' 군 3.05±.42보다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다(t=2.96, $p$=.01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F=4.53, $p$=.003), 성적(F=2.33, $p$=.010), 전공선택 본인의지 유무(t=9.6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3.77±.52로 '불만족'하는 군 3.30±.58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과 '보통'인 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F=4.53, $p$=.003).

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 3.66±.63, '낮은' 군 3.42±.55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F=2.33, $p$=.010). 전공선택 본인의지 유무에서 '예' 하는 군 3.69±.49가 '아니오' 하는 군 3.63±.47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다(t=9.69, $p$<.0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에서는 대학생활

Table 3. Differences in adaptation to college lif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social support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 Variables | | Adaptation to college life | |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 | Self-directed learning | | | Social support | | |
|---|---|---|---|---|---|---|---|---|---|---|---|---|---|
| | | M±SD | t/F | p | M±SD | t/F | p | M±SD | t/F | p | M±SD | t/F | p |
| Gender | Male | 3.06±.46 | 5.91 | .443 | 3.60±.55 | .110 | .740 | 3.45±.43 | 5.01 | .457 | 3.71±.42 | .928 | .085 |
| | Female | 3.13±.47 | | | 3.67±.53 | | | 3.50±.47 | | | 3.84±.50 | | |
| Grade | 1st | 3.11±.51 | 5.15 | .474 | 3.62±.57 | 1.47 | .226 | 3.40±.47 | 4.10 | .513 | 3.84±.45 | 6.37 | .013 |
| | 2nd | 3.12±.54 | | | 3.68±.50 | | | 3.56±.45 | | | 3.80±.63 | | |
|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 Satisfied[a] | 3.29±.53 | 7.07 | .001 | 3.77±.52 | 4.50 | .003 | 3.58±.47 | 2.56 | .020 | 3.96±.55 | 1.07 | .345 |
| | Common[b] | 3.04±.41 | | a>b,c | 3.64±.58 | | a.b>c | 3.46±.46 | | | 3.86±.56 | | |
| | Unsatisfied[c] | 2.90±.38 | | | 3.30±.58 | | | 3.30±.32 | | | 3.73±.67 | | |
| Credit | High[a] | 3.16±.48 | .318 | .728 | 3.66±.63 | 2.33 | .010 | 3.61±.46 | 3.69 | .009 | 3.88±.66 | 2.06 | .130 |
| | middle[b] | 3.09±.45 | | | 3.69±.51 | | | 3.48±.46 | | a>b,c | 3.91±.54 | | |
| | Low[c] | 3.13±.51 | | | 3.42±.55 | | | 3.30±.32 | | | 3.694±.53 | | |
| Extracurricular activities | Yes | 3.14±.45 | 4.55 | .550 | 3.69±.56 | 7.59 | .385 | 3.47±.47 | 2.85 | .494 | 3.84±.60 | .796 | .389 |
| | No | 3.07±.49 | | | 3.61±.50 | | | 3.51±.46 | | | 3.78±.48 | | |
| School life difficulties | Yes | 3.13±.40 | 1.97 | .162 | 3.62±.53 | 1.77 | .154 | 3.34±.50 | 1.13 | .166 | 3.79±.55 | 1.47 | .567 |
| | No | 3.09±.48 | | | 3.74±.55 | | | 3.50±.47 | | | 3.89±.54 | | |
| Economic status | High[a] | 3.26±.44 | 1.75 | .178 | 3.66±.63 | 2.33 | .081 | 3.56±.60 | 3.65 | .008 | 4.01±.65 | 1.65 | .019 |
| | Middle[b] | 3.07±.44 | | | 3.69±.52 | | | 3.51±.42 | | a,b>c | 3.89±.55 | | a>b.c |
| | Low[c] | 3.17±.61 | | | 3.42±.55 | | | 3.23±.45 | | | 3.70±.56 | | |
| Health state | Good[a] | 3.14±.48 | 2.91 | .748 | 3.72±.55 | 3.01 | .020 | 3.52±.49 | 1.07 | .345 | 3.98±.57 | 4.07 | .009 |
| | Moderate[b] | 3.08±.47 | | | 3.60±.52 | | a,b>c | 3.48±.43 | | | 3.81±.56 | | a.b>c |
| | Poor[c] | 3.07±.21 | | | 3.19±.28 | | | 3.45±.14 | | | 3.37±.37. | | |
| Willingness to choose a major | Yes | 3.22±.52 | 2.96 | .015 | 3.69±.49 | 9.69 | .001 | 3.52±.49 | 1.95 | .597 | 3.77±.58 | .196 | .659 |
| | No | 3.05±.42 | | | 3.63±.47 | | | 3.46±.46 | | | 3.85±.55 | | |

*a,b,c,d: Duncan test

만족도(F=2.56, $p$=.020)와 성적(F=3.69, $p$=.009), 경제적 상태(F=3.65, $p$=.008)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군은 3.58±.47, '불만족'하는 군 3.30±.32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만족'하는 군, '보통'인 군이 '불만족'인 군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2.56, $p$=.020). 성적에서는 성적이 '높은' 군이 3.61±.46으로 성적이 '낮은' 군 3.30±.32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점수가 높았다. 사후분석에서도 성적이 '높은' 군이 '중간', '낮은' 군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점수가 높았다(F=3.69, $p$=.009). 경제상태에서는 경제상태가 '높은' 군이 3.56±.60으로 경제상태가 '낮은' 군 3.23±.45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경제상태가 '높은'군이 경제상태가 '낮은' 군보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났다(F=3.65, $p$=.00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에서는 학년(t=3.84, $p$=.013), 경제상태(F=1.65, $p$=.019)와 건강상태(F=4.07, $p$=.009)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높은'군은 4.01±.65, '낮은' 군 3.70±.56보다 사회적지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후분석에서도 경제상태가 '높은'군과 중간' 군은 경제상태가 '낮은' 군 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F=1.65, $p$=.019). 건강상태에서는 건강상태가 '좋은' 군 3.98±.57로 건강상태가 '낮은' 군의 3.37±.37보다 사회적지지가 높았다. 사후분석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은'군과 '보통'인 군이 건강상태가 '나쁜'군 보다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났다(F=4.07, $p$=.009)(Table 3).

Table 4. Correlation amo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social support (N=164)

| Variables | Adaptation to college life |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 Self-directed learning | | Social support | |
|---|---|---|---|---|---|---|---|---|
| | r | *p* | r | *p* | r | *p* | r | *p* |
| Adaptation to college life | 1 | | | | | | | |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312 | <.001** | 1 | | | | | |
| Self-directed learning | 393 | <.001** | 595 | <.001** | 1 | | | |
| Social support | .201 | <.001** | 523 | <.001** | 424 | <.001** | 1 | |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college life (N=164)

| Variables | B | SE | Beta | t/F | *p*-value |
|---|---|---|---|---|---|
| Constant | 3.14 | .428 | | 4.759 | .000 |
| Gender | .084 | .082 | .075 | 1.019 | .110 |
|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 -.192 | .059 | -.237 | -3.145 | .001 |
| Willingness to choose a major | .177 | .087 | -.184 | -2.577 | .010 |
| Economic status | .037 | .042 | .107 | .565 | .573 |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356 | .083 | .294 | 3.082 | .002 |
| Self-directed learning | .366 | .100 | .363 | 3.670 | .001 |
| Social support | -.188 | .077 | -.229 | -2.44 | .013 |
| | | | $R^2$=.287, Adj $R^2$=.269, $p$<.001 | | |

* Dummy variable: * Gender: reference group-F(0), M(1), Department Major Satisfaction: Reference group-Satisfied(00), Very satisfied(10), Common(01), A little unsatisfied(100), Very unsatisfied(001), Willingness to choose a major: Yes(0), No(1)

### 3.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 적응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r=.312, $p$<.001), 자기주도적 학습과(r=.393, $p$<.001), 사회적지지(r=.201,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적 학습과(r=.595, $p$<.001), 사회적지지(r=.523,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적 학습은 사회적지지(r=.424, $p$<.001)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 3.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과전공 만족도, 전공 개인선택 여부를 Dummy변수로 전환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값은 1.981로 2에 가까워 수용기준에 부합하고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었고, 이상 값을 확인하기 위한 Cook's D 검정을 수행한 결과,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787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048-1.981로 10을 넘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를 예측변수로 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759, $p$<.001), 대학생활 적응을 28.7%($R^2$=.287) 설명하였다. 전공만족도($\beta$=-.237, $p$<.001), 전공선택 본인의지 유무($\beta$=-.184, $p$=.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beta$=.294, $p$=.002), 자기주도적 학습($\beta$=.363, $p$<.001), 사회적지지($\beta$=-.229, $p$=.013) 이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2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Joen[28]의 2.93점보다 높았고,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Kim[29]의 3.48점 보다는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선택 본인의지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 군에서 '불 만족' 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30]]에서도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으면 대학생활 적응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나 Oh 등[31]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적응이 어려웠을 수 있으므로[31] 다양한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대학생활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저학년을 위한 대학생활 적응전략을 모색하고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목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32], 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65점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Park 등[21]의 연구에서는 평균 3.46점, Im과 Lee[33]의 연구에서는 3.51점 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33]에서의 2,3학년보다 1,4학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이 간호학과 1,2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학년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건강상태, 전공 선택 본인의지 유무에서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21]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군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3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만족감과 자신감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대학생 자신의 진로나 취업이나 목표 설정 등에 자신이 스스로 학습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34] 대학생활을 잘 적응해가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5점 만점에 평점 3.48점으로 Cho[35]의 연구에서 3.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은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경제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31,36]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대학생활 만족과 경제 수준이 자기주도적 학습 및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자율적이며 주도적인 대학생활이 필요하며, 학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는 5점 만점에 3.89점으로 Han[37]의 3.74점 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38]의 3.88점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지지를 살펴보면 학년, 경제상태,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사회적지지가 높게 나타나 Oh 등[31]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내에서 주변의 도움과 사회적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지지체계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활 적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는 양의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Choi와 Chae의[25] 연구에서도 자기주도 학습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 Bae와 Sung[39]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크며,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효능감이 증가한다는 Woo[40]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8.7%였다. Choi와 Chae[25]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주요한 요인으로서 나타났는데, 이는 스스로 의사결정하며 학습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높으면, 이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는 자신감과 확신이[21]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생활과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있기 때문에[30,33],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예측 변수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만족도도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 저학년의 긍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높이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대학 1,2학년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학년별로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적용 및 운영을 모색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과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선택이 본인의지인 경우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다.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사회적지지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대학생활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 대학생활 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관련이 있음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요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향후 변수들을 추가 보완하여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References


[1] Y. A. Ku, M. S. Seo, S. S. Ahn. "A Study on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iency,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0, No.4, pp.49-74, 2020.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0.10.4.003

[2] H. S. Park, J. M. Yun, S. N. Lee, S. R. Lee & M.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3, No.1, pp.35-45, 2018.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8.43.1.35

[3] H. S. Chae.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n Career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 and Foodservice Management".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23, No.5, pp.34-47, 2017.
DOI: http://dx.doi.org/10.20878/cshr.2017.23.5.004

[4]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182-189,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182

[5] J. 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ungshin, Seoul, 2014.

[6] J. H. Sung, "Influences of gender equality, vocational identity, and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6, pp 2443-2456, 2020.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0.22.6.2443

[7] A. R. Lee, H. J. Jang,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6, pp.2427-2442, 2020.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0.22.6.2427

[8]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 Prentice Hall, 1986.
DOI: https://psycnet.apa.org/record/1985-98423-000

[9] S. D. Brown, R. W. Lent, P. A. Gore, "Self-rated abilities and self-efficacy beliefs: Are they empirically distinc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8, pp.223-235, 2000.
DOI: https://doi.org/10.1177/106907270000800302

[10] J. H. Hong, S. H. Jeon. "The Influence of Dance Mentor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31, No.2, pp.121-139, 2014.
DOI: https://doi.org/10.21539/ksds.2014.31.2.121

[11] H. S. Cho,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Vol.32, No.2, pp.57-72, 2007. https://e-jhis.org/upload/pdf/21400423.pdf

[12] E. O'Shea,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e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3, No.2, pp.62-70, 2003. DOI: http://dx.doi.org/10.1046/j.1365-2648.2003.02673.x

[13] K. C. Kim, A. K. Ya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university freshme", *The Korea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ne Screnoes Education*, Vol.32, No.1, pp.574-585, 2019.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9.4.31.2.574

[14] B. R. Cho, J. M. Lee, "Effects of Undergraduate Stud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4, pp.1-11,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4.001

[15] J. H. Park, E. K. Lee, "Influence of professor trust,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esteem on satisfaction with major stud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9, No.1, pp.167-178, 2018.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8.29.1.167

[16] H. J. Jung, M. J. Cha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j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8, pp. 403-417, 2018.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8.8.8.039

[17] M. J. Seo, J. J. Oh, "The Mediating effect of soial support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21, No.4. 2020.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4.815

[18] Y. H. Choi, M. J. Cha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major satisfaction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0, pp.479-491.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0.041

[19] M. H. Lim,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differentiation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9 pp.225-23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9.225

[20] S. H. Park, S. H. Ha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 517-526,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517

[21] H. O. Park, S. J. Park, J. Y. Kim, H. S. Choi, "The effects of college life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turity of career attitude of new nursing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9, pp.136-146,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9.136

[22] K. H. Kim, S. B. 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scale for university freshme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0, No.3, pp.253~293. 2016. Available From: https://j-kagedu.or.kr/upload/pdf/kagedu-10-3-253.pdf

[23] A. Y. Kim, "Development of standardized student motivation scales", *Korea Society for Education Evaluation*, Vol.15, No.1, pp.157-184, 2002.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20033

[24] K. M. Taylor,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25] K. H. Lee, H. J.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12, No.1, pp.127-136, 2000.

[26] S. J, Lee, Y. K. Chang, H. O. Lee, K. O.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27]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85.

[28] Y. O. Lee, Y. H. Joen, M. S. Kim,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ego resilience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25, No.3, pp.336-345, 2018. DOI: https://doi.org/10.21086/ksles.2018.06.25.3.336

[29] S. O. Kim, "Influence of Positive Thinking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Freshmen in a Nursing Depart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1, pp.72-79, 201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1.72

[30] K. O. Lee, H. J. Cha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0, pp.355-365.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10.355

[31] Y. J. Oh, E. S. Lee, M. S. Park,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elf-leadership on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2, pp.787-797, 2021.

DOI: http://doi.org/10.37727/jkdas.2021.23.2.787

[32]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vocational behavior, Vol.18, No.3, pp.326-339, 1981.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1)90019-1

[33] M. S. Im, S. M. Lee. "The Effe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motives for major selection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11, No.5, pp.71-84. 2020.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1.5.6

[34] M. Fisher, J. King, G. Tague, "Development of a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for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21, No.7, pp.516-525. 2001.
DOI: http://dx.doi.org/10.1054/nedt.2001.0589

[35] Y. M. Cho, "The Effect of core note-based re-learning program on self-determination learning motives, self-directed learning and adaptation to campus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7, pp.307-315,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7.307

[36] M. R. Jo, H. J. Lee, Y. R. Kang, Y. J. Kim, K. M. No, S. E. Choi, "Impacts of image of nurses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12, pp.101-110, 2021.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26723

[37] A. M. Han, "A study on th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5, pp.367-374,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5.367

[38] S. Y. Lee, J. S. Lee, "The convergent effect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ocial suppor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403-412,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03

[39] S. A. Bae, S. Y. Su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 pp.859-877, 2019. Available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6061

[40] Y. S. Woo, M. O. Song,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level, academic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llege life adaptation of jnior college freshme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4, pp. 14132, 2022.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3.4.99

김 종 임(Jong-IM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간호교육, 감염관리